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교육과 전도의 기둥을 든든히

우리 교회는 설립 초부터 교육, 선교, 구제의 세기둥을 세우고

천국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며, 빈약한 자를 구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교육위원회와 선교위원회는 각각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정하고

책임있는 교회의 책임있는 위원회, 그리고 책임있는 일꾼들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교육위원회 - 교사 재교육, 교사양성부, 교사기도회

지난 27일(목)에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에서는 교육위원들이 모여 계절학교 일정과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올해의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 1차는 4월 11~13일, 2차는 9월 12~14일로 새벽기도회 시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를 확충하고 교회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양성부를 월 첫 주부터 10주간 운영할 것이다.

한편, 교사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11개 교회학교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교사상을 정립해 가기로 했다. 교사기도회도 3월 첫 주 금요일 기도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선교위원회 - 70인 전도단원 및 기도후원자 모집

선교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에서는 지난 주 실행위원 모임에 이어 26일(수)에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회장단 모임을 갖고 '선교회, 전도회'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전도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기에 힘쓰기로 했다.

그 첫번째로 70인 전도단 활동을 재기하기로 하였다. 70인 전도단에서 실시하는 10주의 교육과정은 충실히 참여하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70인 전도단의 모집 기간은 1월 30일(주일)부터 2월 20일(주일)까지 4주간이며 이에 대한 문의나 지원서의 배부 및 접수는 사무국 혹은 교구 담당 교역자를 통해 하면 된다.

목회자동정

- 이종윤 목사는 1월 31일(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에서 「기독교 영성과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전국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개회예배에서 주례강연을 한다. 우리교회 협동목사인 김영한 목사가 소장을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의 이번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 이종윤 목사는 지난 24일(월) 연세대학교 장로목회자 동문회인 연장회(延長會)의 초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 이만열 전도사(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는 도산 아카데미 학술회의의 주제 강연을 하기 위해 1월 28일(금) 출국, L. A.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 집회, S. F.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 발기대회 등에서 강연하고 2월 8일(화)에 귀국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컬럼 『순례자』 주일에 개제

- 매주 토요일에 실리던 이종윤 목사의 컬럼 『순례자』가 지난 주부터 주일에 실리고 있다.

교우동정

- 최홍시 장로, 이제원 집사, 하영수 집사는 제증건설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1월 27일(목) 오후 5시에 창업예배를 드렸다.
(제증건설주식회사 ☎ 501-3733, 539-3733)



방학을 맞아 교회학교마다 겨울성경학교 준비모임과 수련회 등의 집중적인 신앙훈련이 한창이다. 지난 25일(화), 대학부 임원과 조장들은 강의와 학습 등을 통해 학원복음화를 위한 전도훈련과 지도자 훈련을 했다.

창세기강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창세기 5장 21 ~ 24절)

이종운 (목사·당회장)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 성경에는 다섯번이나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5:21-24; 히11:5; 유14,15; 대상1:3; 눅3:37).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을 통해 교훈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에녹의 족보

에녹은 아담의 칠대손이라고 했습니다 (유14-15). 이것은 구원사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뜻이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굳이 아담의 칠대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동시대에 또 하나의 에녹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인의 삼대손인 에녹입니다.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城)을 쌓기까지 한 악한 자의 후손, 즉 가인의 후손과 택함을 입은 후손, 곧 셋의 후손입니다. 앞서 공부한대로 아담이 낳은 자손 중에서 인류역사가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위의 두 에녹도 이름은 같으나 상반된 두 계보에서 각각 탄생하여 서로 다른 길로 갈라져 내려온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이 대홍수 사건을 예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속에는 대홍수 이상의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유14-15). 여기에 ‘경건치 않은 자’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불경죄를 범한 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 홍수시대에 사람들은 엄청난 불경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계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성경은 죄인의 길이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을 계시하시므로 누가 구원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히브리어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11:5, 6). ‘동행했다’는 것은 히브리어적 표현이고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헬라적 표현으로 이 둘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동행함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聖徒)란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에게 성별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과단성있게 구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절대적인 순종과 감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항거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절대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며 감격스럽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지식이 배제되어도 안되지만 감정이 배제되어서도 안됩니다. 신앙에는 지(知), 정(情), 의(義)가 조화있게 어우러져

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순종과 감사의 생활을 하였으며 마침내 죄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노아시대의 홍수사건을 예언하고 마지막 심판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는 실수라는 미명 하에 죄를 정당화하려 하고, 교만과 이기심과 과용 따위의 인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죄를 감추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죄와 타협할 수 없으며 경건치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눅2:52). 우리도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과 사람을 즐겁게 할 일,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선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을 택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절대 순종과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말조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심판도 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다는 고사를 생각지 않더라도 말의 위력과 소중함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말이 경솔히 내뱉어지거나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꿈이 많으면 일이 많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많은 말 보다는 바른말 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시간과 재물을 아끼듯이 말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이란 땅에 쏟은 물과 같아서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다시 거두어 들일 수가 없다. 물론 취소라는 요식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 바른 말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혀는 곧 불이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으니 말하기를 조심하는 지혜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 새가족이 되기까지 ◆

피하려 해도

박 가 원 (제7교구, 가브리엘 찬양대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만큼이나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에 불미스런 일이 생겨 불가피하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새로운 교회를 정해야 했으나 이전 교회에서의 상처도 채 치유되지 않았고 새로운 교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여겨져 주일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며 설교동냥(?)을 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 중심의 생활이나 봉사 따위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전부터 알던 두 분의 집사님과 마주쳤다. 오래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기쁨도 맛볼 수 있었고 목사님의 설교말씀도 은혜스러웠으나 교회에 등록하는 일에는 왠지 용기가 나질 않았다. 이전의 상처도 좀 더 치유되어야 할 것 같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평생 섬길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2개월 이상 등록을 안한 채 주일 예배만 출석하고 있었다. 주 중에 집사님들로부터 등록하자고 권유를 받으면 아예 그 주일에는 다른 교회에 참석하기까지 하면서까지 등록을 피하곤 했다.

당시 내 사업은 어려움 속에서 극적인 회생만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하며 매어달려야 함에도 교회 생활이 소극적이다 보니 일상의 신앙생활조차도 힘이 없었던 것 같다. 결국 하던 사업은 정리해야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여러가지 변화를 겪는 와중에서도 너무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교회의 여러분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곤하며 피할 수 없는 길목으로 내 자신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에 들어서며 새가족을 환영하는 팻말을 들고 웃음으로 맞이하시는 집사님의 등록 권유를 예배 후에 하겠노라고 구차히 미루고는 예배에 참석했다. 교회를 정하고 등록하여 바른 신앙지도를 받으며 봉사하기를 원했던 아내의 “예배 마치면 정말 등록하실거죠?”라고 조심스레 물어왔고, 나는 “어떻게 달아날까”를 궁리하느라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오한이 나고 주위 분들에게 송구스러울 정도로 격렬한 떨림 때문에 고통스럽기만 했다. 어느 집사님의 침묵을 잘 알고 있던 나는 예배를 마치자마자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집사님이 계신 3층까지 겨우 내려와 침 좀 놓아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침을 맞으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한 내 곁에는 이미 새가족 등록카드가 옆에 놓여져 있었다. 아내와 함께 피할 수 없이, 그리고 왠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카드를 작성하였다.

괜한 고집으로 사람들을 피하느라 신앙생활마저도 소극적이었던 생활을 벗어나니 마음이 그리도 가벼울 수가 없었다. 인간적 생각과 완악함 때문에 피해만 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곁에서 안타까이 지켜보시며 인도하신 것 같았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고 믿을수록 더 깊은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며, 봉사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이 주 안에 사는 생활의 신비인가보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겸손함으로 충성할 것을 다짐해 보며, 나와 내 가족이 섬기기로 작정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으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할 뿐이다.

경의 입기

1월 21일 믿음



조동부 찬양대 수련회 다녀와서

올해에는 더 예쁘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닮은 어린이가 되어보려고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타고 먼 곳까지 훈련을 다녀왔다. 선생님께서는 성경과 찬송가, 악보,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해 오라고 하셨다.

그런데 식사시간에 보니 도시락을 미처 준비 못해온 친구도 있었고 엄마가 바쁘셨는지 도시락 대신 돈으로 가지고 온 친구도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밥과 반찬을 한군데로 모아 보자고 하셨다. 감사기도를 드린 후 맘껏 웃으며 실컷 먹을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상하게도 자기 것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배부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쓰고 나누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라는 복음성가의 뜻을 알 것 같았다.

도시락 대신 점심을 준비해 온 친구들은 그것을 모아 건 축헌금으로 바치기로 했다. 친구들은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석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도시락을 다함께 나누어 먹었으니까. 나중에 근사하게 지어질 우리 예배당에는 오늘 있었던 우리의 재미있는 일과 우리 모두의 조그만 정성이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겠지...

◆ 순례자 캠퍼인 ① - 바른 예배드리기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 24) 고 하신 말씀에 따르면 주

1. 5분 일찍 오기
2. 앞자리부터 앉기
3. 먼 곳부터 주차하기
4. 드리고 받는 예배
(예배순서와 그 의미)
5. 가정예배 드리기

저야만 할 것이다. 그를 위한 첫번째 노력을 미리와서 준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 보자.

최소한 예배시

님의 예배정신은 프로그램이나 예배의 의식(儀式)을 넘어서는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진리를 좇아 드리는 영적예배는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산제사(롬12:1)가 되어야 함은 물론,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

작 5분 전, 예배실 좌석에 도착해서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성경과 찬송가, 안경과 필기구 등을 미리 꺼내 놓고 한 주간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주일은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자.

그러기 위해 주차하는 시간,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시간, 계단 오르는 시간을 모두 염두에 두고 집에서의 출발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예배는 벌써 시작했는데 ...

주차 시간, 계단 오르는 시간까지 염두에 두고 여유있게 출발해야지만 지각을 면할 수 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배움을 입자

신년 벽두부터 물문제로 야단들이다. 식수문제는 이번에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 사건이 아니다.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근본적인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책임회피나 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함으로 끝낼 수 없다. 식수원인 많은 강들이 심하게 오염되어 창조질서인 자정(自淨)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 송사리가 노니는 맑은 물로 회복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차재에 자연 회복을 위한 의식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창출된 각종 화학 물질이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공익의 측면에서 철저한 뒷처리를 하지 않고 남몰래 버리고 마는 한심한 이기주의를 도려내지 않는 한 강물은 영원히 죽어버릴 것이다. 양심과 함께 방류한 오염 물질이 결국 부메랑처럼 발암 물질을 함유한 악취나는 수도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해 누가 누구를 탓하며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을 것인가? 누가 굶은 배움을 입고 누가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돌아서고 말 것인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선택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우선 나 자신에의 감시가 철저하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환경은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참으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름다운 동산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圭>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목회자세미나 동문회 발기인총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지난 24일(월)에 목회자 세미나 동문회 발기인 모임을 갖고 목회자세미나 동문회의 창립 총회를 오는 3월 21일(월) 한남동에 위치한 여선교회관에서 가지기로 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는 지난 2년간 진행되었으며 4학기를 모두 수료한 108명이 이번 동문회의 회원이 된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가 마련되도록
2.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도록
3.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4.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각 부서의 활동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 소식

◆ **고등부** 고등부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항상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양성 속에 일체감을 추구하는 멋진 교사와 학생들의 화목함도 고등부를 지켜온 힘일 것이다. 올해는 「목요회」를 만들어 학원복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다. 2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광성기도원에서 겨울 수양회를 가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기도회가 27일(목) 교회에서 있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귀중한 시기에 있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번 수양회가 말씀 가운데 비전을 보는 잊지 못할 수양회가 되기를...

◆ **중등부** 1994년 교회 표어에 맞추어 “성령충만으로 뜨겁게, 말씀충만으로 새롭게”를 94년도 중등부 표어로 했다. 학생들에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 신행일치의 삶을 가르쳐 주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올해 성경을 1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질적, 양적 부흥을 위해 매주일 오후 교사 훈련을 하고 있다.

◆ **청년부** 몇 주 전부터 정식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풀어보는 10분 스피치 시간을 마련했다. 매 주 한 명의 발제자가 청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실제적인 고민과 갈등과 견해를 발표하고 질문도 받으며 인생과 신앙의 선배가 되시는 선생님들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한다. 작년 5월에 출발하였으므로 제 1회가 될 이번 겨울 수련회는 “청년의 때 말씀을 따라 삼가자!”는 주제로 2월 28일(월)과 3월 1일(화) 양일간, 소망 수양관에서 집중적인 영성훈련을 할 예정이다.

◆ **탁아부** 지난 주일부터 104호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숲 속에서 들리는 듯한 뿔소리나 나는 시계도 걸고 예쁜 풍선도 곳곳에 달고 벽면도 꾸며 보았다.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동안 탁아부에 맡겨진 아이들도 재미있는 율동과 찬송과 기도를 배우며 같이 예배드린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먼저 배우게 되기를 선생님들은 늘 기도한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길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